

윤리와 사상 선지 정리

by Ode To Sleep

1. 인간과 윤리 사상

1) 고자

- 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로움은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다. 인성을 가지고 인의를 행하는 것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타고난 생리적 욕망이 본성이다. (수특)

2. 유교

1) 순자

- 예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다. (수특)

- 본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감정은 본성의 바탕이며, 욕망은 감정의 반응이다.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 가까이 이를 수 있고,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적절히 조절할 수는 있다.

- 사람은 도덕적 옳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 군자가 권세를 얻어 소인들에게 군림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끌어들이 수 없다. (수특)

- 하늘의 직무는 작위를 가하지 않고도 이루어지고, 추구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하늘에 대해 생각을 더하거나 능력을 보태려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을 이용하나, 직무를 두고 하늘과 다투지 않아야 한다.

- 마음 안에 인의예지의 단서가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다.** (수완)

2) 양명학

- **몸을 주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의이며 의의 본체가 바로 지이고 의가 있는 곳이 곧 물이다.** 만약 의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물이고, 의가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데 있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물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특)

-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은 곧 이이다.** 인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은 진실로 어질고자 하여 인을 극진히 발휘하는 것이고, 의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은 진실로 의롭고자 하여 의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인의는 단지 나의 본성일 뿐이므로 궁리란 곧 본성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맹자가 "측은지심을 확충하면 인을 이루 다 쓸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궁리 공부이다. (수특)

- 양지는 곧 천리이고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본체이다. (수특)

- 성은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 본성을 함양하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X

- 격물이란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고, 치지란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22' 6평)

- 사람의 마음은 텅 비고 영명하여 어둡지 않고 만사가 거기서 출현한다. (수특)

- 모든 사람이 지닌 **양지는 시비지심과 같은 것이다.** (수완)

3) 맹자

-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불인인지심) (수특)

- 사람이 그 마음을 다하면 자기 본래의 성을 알 수 있고, 그 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자기 본래의 성을 기르는 것(존심양성)이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요, 수명의 길고 짧음에 마음 쓰지 않고 몸을 닦고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곧 명을 세우는 것이다.** (수특)

- 입이 맛을 좇고 눈이 색을 좇음은 본성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명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에 인이 있고 군신 사이에 의가 있음은 모두 명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본성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그것을 명이라 하지 않는다. (22' 6평)
- 예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19' 9평)
- 예는 인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하는 절도와 규칙이다.
- 백성의 교화를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 임금이 왕도를 실천하지 않음은 하지 않는 것이며 할 수 없는 것이다 X (21' 수능)
- 이로움의 증진보다 백성의 성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X
-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군주의 일차적 책무이다 X (수특)
- 백성의 도덕심은 생업이 안정되어야 형성된다 X
- 통치자는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통치해서는 안 된다.

4) 성리학

- 양지는 곧 천리이고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본체이다 X (수특)
- > 양지는 마음의 본체 X, 마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앎 O
- 인간과 사물이 천지 사이에 생겨날 때, 이는 동일하지만 품수한 기는 서로 다르다. 인간은 기의 바름과 통함을, 사물은 기의 치우침과 막힘을 얻었다.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이다. 사람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선을 행하기도 한다. (15' 수능, 17' 수능)
- 심은 이를 갖추고 있는 곳이고, 성은 심이 가지고 있는 이이다. 성은 곧 이이고 심은 이것을 싣고 있다가 베풀어 쓴다. 즉 움직이는 것은 심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이다.
- 심통성정론: 마음은 이미 움직인 것과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을 포괄한다. (수완)
- 성은 마음을 벗어나서도 존재한다. 천리(본연지성)은 마음 밖 사물에도 존재한다.
- 물에 비유하면 성은 물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고요한 상태이며, 정은 물이 흐르는 것이다. (수완)
- 양지와 양능만 있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X
- 마음은 본래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그 체는 허령하여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치는 비록 온갖 일에 흠어져 있지만 그 용이 미묘하여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 (18' 6평)
- 마음을 보존하는 것은 도체의 큼을 지극히 하는 것이요, 치지는 도체의 세밀함을 다하는 것이다. 한 올의 실만큼의 사사로운 뜻으로도 자기를 가리지 않고 한 올의 사욕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 이미 아는 것에서 함양하고 이미 능한 것에서 돈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존심에 속하는 것이다.
- 인간과 동물은 기질지성은 다르지만 본연지성은 같다.
- 사단을 확충해야 하늘이 명한 성을 실현할 수 있다.
- 인간만이 사단을 확충할 수 있다.
- 부모와 자식이 있기 전에 이미 부모와 자식의 도리가 있으며, 임금과 신하가 있기 전에 이미 임금과 신하의 도리가 있다. 원래 이러한 도리가 없는데,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가 생긴 다음에야 그러한 도리를 그들에게 옥여넣었겠는가? **아직 일은 없더라도 이미 도리는 있다.** (수완)

5) 공자

-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인간의 본성 안에 예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X (19' 9평)
- 지금 세상은 대도가 없어지고 천하는 한 집안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고, 재화를 사유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세력을 사용한다. 천자와 제후들도 세습하는 것을 예로 삼으며, 지혜와 용맹으로 인한 공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간사한 꾀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였다.
- 성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은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며,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다.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규제하면 백성은 잘못을 하고도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른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바로잡는다.

- 도는 인격적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이다.

6) 공자 맹자 순자 공통

- 주체적으로 예를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 X
- 법령과 형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덕치를 도모해야 한다 X (18' 9평)
- 상과 벌의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도덕적 타락을 예방해야 한다 X (13' 6평)

7) 성리학 양명학 공통

- 인간은 누구나 사단을 지니고 있다. (15' 수능)
- 양지와 양능은 인간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 격물치지는 천리의 보존으로 수렴될 수 있다. (21' 수능)

3. 한국 유교

1) 이황

- 사단은 기가 아닌 이에서 유래한 선한 성 X (수특) -> 정!
- 이의 '본체'는 무위 (수완) -> 주희의 개념이므로 이이와 공통점 (이황: '이'는 유위)
- 이에 동정이 있다는 것이 기발의 근거이다. (수특)

2) 이이

- 이통기국론: 이는 형태가 없고 기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수완)
- 기질지성을 교정하면 본성이 실현될 수 있다. (수완)

3) 정약용

- 측은지심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X (수특) -> 측은지심: 마음 O, 본성/이치/덕 X
- 사단은 심이지만 성도, 이도, 덕도 아니다. (수완)
- 인간은 선행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 사단을 마음의 기호로 보아야 한다 X (수특) -> 사단: 심 or 정
- 사단은 영명한 본체(성: 천명지성)에서 발동된다. (수특)
- 사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실천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외적 강제 X)
- 기질의 편차로 선행과 악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동물의 기질지성은 형구의 기호로 다르지 않다. (수완) -> 이황, 이이 비판 가능
- 사단은 인성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완)

4) 이황 & 이이 공통

- 본연지성은 품부받은 기질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X -> 본연지성은 순선무악 (21' 수능)
- 사랑이라는 일반 감정과 측은해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 X (20' 6평)
- > 이황: 개념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
- 선한 정은 이로부터 발하고 악한 정은 기로부터 발한다 X
- > 이이: 이발 부정 / 이황 이이 모두: 칠정은 가선가악이지 악한 감정으로 정해진 것 X

5) 이황 & 이이 & 정약용 공통

- 본성을 따르고 수양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수완)

4. 불교

1) 중관 사상

-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무라고 설하며, 가명이라고도 하고, 또한 그것을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 어떠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수특)
- 부파 불교에서 나타난 자성 개념을 비판함 (수특)
- 유에 집착하는 관점과 무에 집착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강조 (수특)
- 중관: 중도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수특)
- 모든 사물은 유와 무의 양극단이 아닌 중도의 자리에 머문다. (수특)
- 인연으로 발생한 구체적 사물들은 무자성이다. (수특)
- 자성이 없는 모든 법들은 완전히 무와 같다 X -> 공하다 (=/= 무)
- **의식과 사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공이므로 의식에도 어떠한 실재가 없다.** (수완)
- 물질과 의식은 공하므로 **자성이 없다.** (수완)

2) 유식 사상

- 오식은 연에 따라 일어난다. 어느 때는 함께하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이 모든 식이 전변해서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뉜다. 이것들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이것과 저것은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체는 오직 식 뿐(유식)이다. (수특)
-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를 강조함 (수특)
- 모든 현상은 단지 식의 작용으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수특)
- 인연으로 발생한 구체적 사물들은 무자성이다. (수특)
- 현상 세계를 만들어낸 마음을 비우기 위해 수양해야 한다.
- 마음은 원인과 조건에 관련되어 생겨난다.
- 자연성에도 자성이 없으나 원성실성(집착하는 자아, 법을 멀리 떠남을 특성으로 함)은 있다. (수완)
- **해탈:** 의식을 제대로 알고 수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궁극 목적이다. (수완)
- **의식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 (수완)

3) 의천

- 법은 언어의 모양(상)이 없으나 언어의 모양을 떠나는 것도 아니니, 언어의 모양을 떠나면 미혹(혹)에 빠지고 언어의 모양에 집착하면 진실(진)에 미혹된다. 다만 세상에는 온전히 재주가 있는 사람이 드물고 모두가 아름다움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교를 배우는 사람은 안을 버리고 바깥을 구하려 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연을 잊어 안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모두 한 방향으로 치우친 집착이니 이변에 막혀 있다. (수특)

4) 지눌

-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본체에 즉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한 가운데 항상 지혜가 빛을 발하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항상 고요하다. (수특)
- **돈교와 점교를 분별하면** 마음 닦는 사람들이 제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며 제 성품이 부처의 성품임을 알지 못하게 되고,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해 괴로이 점행을 닦는 일이 나날이 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라는 뜻으로 마음에 새겨 물러날 마음을 내지 않고 용맹스럽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제 성품을 보아 단박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 선정과 교리를 본체와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X -> 선정과 '지혜'
-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와 **함께** 닦아나가야 한다. (21' 6평)
- 점수로서의 수행은 **돈오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점진적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X (수완) -> 단박에!

5) 혜능

- 선지식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다 본래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따름이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견성하여야 하느니라. (수특)
- 선정과 지혜는 본래 일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수완)
-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수완)
-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주체인 자성이 존재한다. (수완)
- 중생도 염불만으로 이상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X (21' 수능) -> 원효에 해당 / '염불' = 문자
- 교리의 공부와 참선 수행을 함께 해야만 한다 X

6) 원효

- 유를 싫어하고 공을 좋아함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다다름과 같다. (수특)
- 일심을 바탕으로 유를 버리고 공에 의지해야 한다 X (수특)
-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19' 9평) -> 일체유심조
- 모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본래의 마음(일심)을 회복해야 한다.
- 진과 속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에 체를 들어보면 둘이 된다. (수특)

7) 석가모니

-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행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 (수완)
- 인간의 의도적 행위(업)이 있어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21' 9평)
- 나와 세상 만물은 연기에 따라 (우연히 X) 이 세상에 존재한다.
- 연기를 통해 만물의 실체가 형성된다 X (12' 수능)
- 모든 것은 생멸하므로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 X (18' 수능) -> 오온으로 구성된 '가아'는 존재
- 식이 탐욕을 떠나면 (깨달음의 경지) 다시는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하게 된다. (22' 6평)
-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수특)
- 선정을 닦아서 사물과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한다 X
- 재물은 실로 피안을 찾는 이들을 해하지 못한다. (수완)
- 생사와 열반은 엄격히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X -> 열반의 추구: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

5. 도가

1) 도교

- 현세적인 길과 복의 추구를 중시한다. (수특)

2) 도가

- 하늘이 행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자연에 따라 살 수 있다. 사람이 행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바를 보완하여 자신의 수명을 다할 수 있으니 이것이 앎의 지극함이다. 그러나 이런 앎은 무엇인가 의거하는 데가 있는 뒤에야 마땅함을 얻으니, 그 의거하는 바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불안정하다. 장차 진인이 있는 뒤에야 진실한 앎이 있게 될 것이다. (수완)
- 타고난 본성을 지키는 앎을 추구해야 한다. (수완)
- 자연은 안에 있고, 인위는 밖에 있으며, 덕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멀하지 않고, 고의로 명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해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17' 6평)

-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끝을 두들겨 날카롭게 하는 것은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마루에 가득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부귀하면서도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 타고난 도덕심을 통하여 본성을 확충해야 한다 X
- 하늘의 도를 내면화하고 만물의 화육을 도모한다 X -> 유교
- 성인은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 도덕규범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 소요유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물을 잘 활용해야 한다.

6.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

1) 정제두: 강화학파

-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생리)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에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측은, 수오, 사양, 시비 어느 것이나 능히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그 고유한 덕으로서 이른바 양지란 것이고 또 인이란 것이다. (수특)
- 양지를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로 보았다. (수특)
- 단이란 것은 사물의 '첫머리'를 가리킨 것이니, 그 발생하는 곳을 이른다. **마음의 생리**가 전체에 총만하고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이 있어서 발용과 유행이 이가 아님이 없으니, 이는 마치 나무에 생리가 있으면 가지와 줄기가 뻗어 나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그것을 확충하여 행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삼고 있으므로 단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불이 타기 시작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지만 아직 활활 타오르거나 찰찰 흐르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과 같다. **사실상 사람의 한 마음은 그 전체가 모두 이 이가 아님이 없다.** (수특)
- 양지는 명덕의 본체로서 **옳고 그름을 아는** 참된 앎이다. (수완)

2) 동학

-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보국안민을 주장함 (수특)
- 오심즉여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임 (수특)
-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 섬기듯 함 (수특)
- 성, 경, 신의 수양을 강조함 (수특)
- 세상의 모든 진리와 학문은 동방에서 나왔다 X
- 한울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오직 기연만 남게 된다.
- 개혁은 후천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X

3) 원불교

- 영육쌍전: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 (수특)
- 도학을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개혁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물질을 개혁해야 한다.

4) 위정척사 & 동도서기 공통

-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외세를 극복해야 한다 X

5) 증산교

- 선천의 세계에서 조화로운 인간의 삶이 실현될 수 있다 X -> 후천!

7.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덕 윤리

1) 소크라테스

- (...) 훌륭함은 결국 신의 선물로 우연히 주어지는 것 같네. 그렇지만 우리가 "훌륭함은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연히 주어지는가?"라는 문제에 앞서 먼저 "훌륭함 그 자체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훌륭함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네. (수특)
- 영혼이 불변하는 것과 사됨으로써 영혼 자신도 불변하게 된 상태가 곧 지혜이다.
- 경건한 것은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21' 6평)
- 앎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수특)
- 불의는 무지이자 어떠한 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완) -> 악덕에 해당!
- 용기의 덕 그 자체는 행위자에게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다. 덕은 옳고 그름에 대한 앎의 안내를 받아야 유익하다. (수완)
- **자진해서 선을 제쳐 놓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은 본래부터 사람의 본성에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악 속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작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큰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수완)

2) 플라톤

- 이성은 '지혜'의 덕을 갖춰 기개와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
- 통치자들은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로 시련을 겪어도 제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 신념을 힘든 일이나 두려운 일, 또는 다른 어떤 변화에 처해도 내던지지 않는 사람들로 판명되어야 한다.
- 이상 국가에서 누가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 세 계층은 절제를 발휘하여 의견 일치로 이룬다.
- 국가는 시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3) 아리스토텔레스

- **이데아론 비판:**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하나의 동일한 설명, 즉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무엇 자체'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자체'나 '좋은' 역시 좋은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다.** (...) 좋다고 말할 때는, 신과 지성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어떤 이유 혹은 어떤 면에서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덕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성질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적당량이 좋다고 말할 때처럼 양에서도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엇에 유용하다고 말할 때처럼 관계에서도 좋다고 말하고, 시간과 장소, 그 밖에 다른 점에서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좋음이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수특)
-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될 것이기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파악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영혼의 활동이며,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영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특)
- 지성적 덕: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 (수특)
- 품성적 덕: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 (수특)
- 영혼의 욕구적 부분의 덕 (=품성적 덕)은 감정을 배제해야 형성된다 X (수특)
-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 X -> 두 악덕(과도함-부족함) 사이의 중용 O (수특)
- 행복 실현을 위한 최고의 덕은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의 덕인 실천적 지혜이다 X (수완)
- > 철학적 지혜!
- 좋음이 변화하는 상황과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수특)
- 모든 탁월함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를 말한다 X -> 품성적 덕만!
- 용기, 절제, 정의는 품성적 덕이고 지혜는 지성적 덕이다.
-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지적인 덕)은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 관련된다. (수특)
- **실천적 지혜**는 인간적인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지성적 덕이다.

- 시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X
- 우리는 좋은 것들이나 나쁜 것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 우리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 중 어떤 하나를 취하거나 회피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합리적 선택은 그것이 옳게 선택되기 때문이라기보다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수완)

4) 소피스트

- 프로타고라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완)
- 프로타고라스: 덕 있는 행위는 좋고 유익하다. 그런데 덕 중에서 용기는 경건, 정의, 절제, 지혜와 전혀 다르다. 불경하고 부정의하며 무절제하고 무지하지만 용감한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롭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들이 있다. (수완)

8. 에피쿠로스, 스토아, 중세 기독교

1) 에피쿠로스

- **벤담과의 공통점:** 한 행위에 의해 발생할 쾌락과 고통의 양적 차이는 비교될 수 있다. (수특)
- 정의란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도록 지켜 주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다. (수완)
-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욕망은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18' 6평)
-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21' 6평)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공허한 추측이므로 이성적 숙고를 통해 제거해야 한다. (수완)
-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충족시키지 않아야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수완)
- 신은 인간에게 **호의도 악의도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수완)

2) 스토아

- (...) 이와 같이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라면 아무것도 나쁘지 않다. 우주에서 생성되는 사건과 사물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들 중 그 어떤 것도 기쁨을 제공하도록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수특)
- 진정한 법은 인간들의 재능이나 인민들의 의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법은 자연에 새겨진 최고의 이성이요, 여러 신들 중 최고신의 올바른 이성이다.** 이 법은 자연에 부합하며 만인에게 확산되고 늘 변함없고 영구히 지속된다. 또한 이 법은 현자의 이성이요, 정신이다. (수특)
- **칸트와 공통점:** 인간은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만 하는 행위를 의무로서 갖는다. (수특)
-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신적 이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 (수완)
- 신들이 하는 일들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운명이 하는 일들도 자연과 무관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운명이 하는 일들도 섭리가 지배하는 복잡한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만물은 섭리에서 흘러 나온다. (수완)
- 더 나은 국가의 실현보다는 **개인의 평온한 삶**이 주요 탐구 주제로 부각된다. (수특) -> 에피와 공통점!
- 지혜는 그 자체로 유쾌하다.
- 부와 명예와 같은 것은 원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18' 수능)
- 우리는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완) -> 제거가 아니라 억제는 OK
- 쾌락과 공포는 비이성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정념에 해당한다. (수특)
-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다.
- **쾌락, 슬픔, 공포와 같은 비자연적 정념**에 초연해야 한다. (수완)
- 탁월함인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연은 이성적 동물인 인간을 각자의 가치에 따라 서로 도와주도록 만들었으며, 결코 서로 상처를 주도록 만들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은 신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연은 모든 만물을 포함한다.** (수완)

3) 아우구스티누스

-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사랑이어야 왜곡된 사랑이 아니고 바른 사랑이다. 피조물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이다. 이러한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 피조물은 그것을 사용 혹은 향유하는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부패시켜 버린다. 어떤 피조물이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낮은 것일 때, 그것을 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신은 향유해야 할 대상이다.** (수특)
- '바른 사랑', 즉 '질서 잡힌 사랑'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물질보다는 인간을, 육체보다는 영혼을, 인간의 영혼보다 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향유할 대상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유란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며, 사용은 대상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다.** (수특)
-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며, 신이 창조하지 않은 실체는 있을 수 없다. 썩는 것은 모두 선을 상실한다. 어떤 존재가 썩어서 선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선하므로 악은 실체가 아니다.
- 영원법을 반영하고 있는 도덕률을 따르지 않고는 본성을 발휘할 수 없다.
- 두 사랑이 두 나라, 즉 지국(인간에 대한 사랑)과 천국(신에 대한 사랑)을 만든다. (수특)
-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믿음 X ->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 O (수완)

4) 아퀴나스

- 인간에게는 모든 다른 실체들과 공유하는 성향, 즉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과 몇몇 동물들과 공유하는 성향, 즉 종적인 것에 대한 자연적 성향이 내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적 성향이 있는데, 이는 이성이라는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신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과 사회적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이다.** (...) 우리의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도출된다. 인간이 자연적 성향으로 가지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되고 추구의 대상이 된다. 그 반대는 악으로 이해되고 회피의 대상이 된다. (수특)
- 철학적 진리와 계시된 진리는 모순될 수 없다. (수특)
- **인간은 신에 의해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목적으로 질서 지어졌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의도나 행위를 목적으로 질서 지어야 하기에, 그 목적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목적이 신의 계시로 인간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하다. **신학과 철학은 서로 구별되지만 두 영역 간에는 어떤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수특)
-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18' 6평)
- 신학적 덕은 초자연적인 존재(신)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을 통해)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18' 9평)
- **영원법이** 실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작용의 근거이다. (17' 9평)
- 인간의 모든 활동은 **진리의 관조**를 목적으로 한다. (수완)
- 혼란스러운 감정으로부터의 평정 (->예비적 단계의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 품성적 덕과 실천적 지혜이다. (수완)
-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 원리의 이해에 따른 관조에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X (수완) -> 내세에서의 신과 합일
- 원리의 이해에 따른 관조는 인간 노력의 **출발점**이지 목적이 아니다. (수완)
-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지혜의 관조와 신적 존재자에 대한 고찰에 따른 관조**에 있다. (수완)
- 참된 행복은 신앙으로 '신 또는 자연'과 합일할 때 실현 가능하다 X -> 신 \neq 자연
- 최고의 행복은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 도달할 수 있다. (수완)

5) 중세 기독교 공통

- 신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에 의해 신을 인식해야 한다 X (수특) -> 스토아!
-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X -> 신의 은총 필요
- 최고의 덕인 사랑을 통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
-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20' 9평)

6) 에피쿠로스 & 스토아 공통

- **공동체 안에서의 소박한 삶**이 정신적인 만족을 가져온다. (수완)

9.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흄

1) 베이컨

- 우리의 방법은 출발점에서는 회의론자들의 방법과 얼마간 일치하지만 결론에서는 완전히 반대된다. 회의론자들이 감각과 지성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비해, 우리의 주장은 감각과 지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도와주려고 한다.

2) 데카르트

-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수완) -> 베이컨과 공통!
-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단 한번이라도 의심해 보는 것이다. (21' 9평)

3) 스피노자

-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수특)
- 행복을 누리기 위해 덕을 갖추어야 한다. (수특)
- 인간의 공동체 이익에 대한 관심은 자기 보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특)
- > **모든 사물은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며,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관심은 이성을 통해 공동체의 번영과 성장을 바라는 관심으로 확장된다.**
-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 (20' 수능)
- 모든 사물은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수특) -> 아퀴나스와 공통점!
- 행복에 도달하려면 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아퀴나스와 공통점!
- 인간의 방해하는 장애물로 가득 찬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증명한다. (수특)
- 신의 속성에 대한 타당한 관념에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수특)
- 기쁨은 참다운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이익에 알맞게 조정되는 한 악일 수 없다. (수완)
- 자기보존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경우에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을 느낀다. (수완)
- > cf) 슬픔: 수동적 감정 (정념)
- 우리가 이성적 삶을 누리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모든 방식으로 이용해도 좋다. (수완)
- **참된 학문은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수특)
- 신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선을 행하지 못할 수 있다. -> 정념의 속박 때문에!

4) 흄

- 어떤 품성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수특)
- 도덕성과 관련한 감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말한다.** (수특)
-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을 받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수특)
- 모든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수특)
-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도덕적 감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특)
- 감정은 이성과 달리 선행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다. (수특)
-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수특)

- 도덕적 감정은 모든 종류의 쾌감과 불쾌감을 포함한다 X (수특)
- **회의주의적 인식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지각들의 다발 또는 집합일 뿐이며, 이 지각들은 표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서로 잇따라 일어나며 영원히 흐르고 운동한다. (수완)
- > 어떤 대상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결부의 이유를 꿰뚫어 볼 수 없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관찰할 뿐이며, 언제나 상상력 안에서 대상들이 합일된다는 것을 항상적 결부로 부터 발견한다. (수완)
- 감정들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 감정들이 **주관적 감정은 아니다**. (수완)
- 도덕적 구별은 **공통의 관점을 가진 관찰자의 자세**를 필요로 한다. (수완)
- 도덕 판단의 객관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 **자기애의 감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도덕감을 설명하려 하는 이론을 수용해야 한다 X -> 보편적 감정(공감)!
- 도덕적 구별의 대상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품성도** 포함된다. (수특)
- 인간에게 이성은 인과 관계의 **실제적 결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X (수완) -> 알 수 없음 (회의주의)
- 정념과 의욕 및 행위는 이성과 상반될 수도 없고 합치될 수도 없다. (18' 9평)
- 자아에 대한 감각적 지각은 가능하다. (수특)

10. 의무론, 공리주의

1) 칸트

- 인간의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의 원천이자 의무의 원천이다. (수특)
-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는 보편성이나 필연성을 가질 수 없다 X (수특)
- > 주관적 행위 원리도 보편화 가능할 수 있음
- 도덕 법칙은 자연과 자연적 경향성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19' 9평)
- 존경은 도덕 법칙의 작용 **결과**에 해당한다. (원인 X)
- 행복의 원리가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도덕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 (18' 수능)
- 쾌락에 몰두한 사람이라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향락을 위해 '자연적 재능을 방치해도 된다'는 준칙이 법칙이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21' 6평)
- 인간은 행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경심은 가질 수 없다**. (21' 수능)
- 실천 이성을 통해 얻는 행복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X
- **선의지**란 제한 없이 선한 것으로서 의지의 자율에 의해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수완)
- 도덕적 마음씨는 직접적으로 법칙에 따라 의지를 규정한다는 의식과 필연적으로 결합해 있다. (수완)
- 경험에 근거한 행복의 원리는 **행위 준칙(≠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수완)
- 자기 행복의 증진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의무일 수 없다**. (수완)

2) 선호 공리주의

- 쾌락의 증가가 아니라 선호의 만족이 공리를 증대하는 것이다. (수완)

3) 공리주의 공통

- 행위 동기는 **행위 결과의 선악과 연관될 때**에 선악 판단이 가능하다. (수완)

11. 실존주의, 실용주의

1) 키르케고르

- 믿음의 역설: 믿음을 가장 내면적인 사건으로 보았는데, 이는 인간의 정신이 그 중심에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그 자체를 두는 것으로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실현된 내면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

화, 규범, 학문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이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기초한 내면성인 개별적인 것에 대해 하위의 것이 되고,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규정하게 된다. (수특)

- **주체성과 주관적 진리 모두 진정한 실존에 필요하다.** (20' 9평)
- **신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완)

2) 사르트르

-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필연성 X)
- 인간으로서 타고난 본성을 주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X
- 인간은 세상에 **필연적으로** 던져진 존재로서의 사명이 있다 X (수완)

3) 야스퍼스

4) 하이데거

5) 실용주의

- 하나의 관념이나 개념은 **특정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성공할 만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명령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주장이나 요구, 계획이 실행될 때 그것은 우리를 참되게 혹은 거짓되게 인도한다. 또 그것은 우리를 목표에 도달하게 인도하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것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에 의해 도출된 행위의 질에 그 진위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진리란 삶의 방편으로서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수특)
- **칸트와의 공통점:** 도덕적 상황에는 옳은 선택이 항상 존재한다. (수특)
- 행복은 단순한 소유물도 고정된 획득물도 아니며 성공 속에서만 발견된다. (수완)
- 도덕 판단은 **지성적 행위를 통해 미래에 산출될 사건을 예측하는 판단(가설)**이다. (수완)

12.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1) 포퍼

-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열린사회란 반증을 위한 비판과 토론이 살아 있는 사회이다.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세를 지켜 나가야 한다. (수특)
- 열린사회는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회이다. (수특)
- 열린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된 민주적인 사회이다. (수특)

13. 국가와 시민

1) 공화주의

- **키케로:**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동의한 다수의 결사이다. (수특)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화국이어야 한다. 국가는 법에 대한 동의와 유익의 공유에 의해서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결속한 인민의 것이다. 한편 인간이 결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 즉 군집성 때문이다. 사실상 인간은 홀로 떠도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것의 풍부함을 부여받았어도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강제되도록 태어난 것이다. (수완)
-> 모든 결합 중에 공화국의 결합이 가장 소중하다. (수특)
- **마키아벨리:**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시민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화국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 그러므로 당파적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법률을 통해 열

어 놓는 조치만큼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수특)

-> 소수가 공화국의 권력을 독점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통치자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당파가 있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특)

-> 정치 참여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수완)

- **페잇**: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노예 상태의 반대라고 규정하고,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대한 해악으로 간주하는 데 이견이 없다. 노예는 실질적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에 의해 특징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는 매우 중요하다. 노예의 주인이 전적으로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수특)

->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할 것을 강조 (수특)

- **비롤리**: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 **애국심**: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 주는 조국에 대한 인위적 열정**을 말함. 구성원들 간의 주종적 지배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애국이 참된 애국임.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분되며, 특정 공화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뜻하므로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자유주의의 헌법적 애국심과도 차이가 있음. (수특)

- 법치의 목적은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와 그로 인한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며, 법치를 통해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함

2) 자유주의

- **헌법적 애국심**: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 (수특)

- 민주적 절차를 토대로 형성된 정치문화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헌법 애국주의**를 주장한다. (수완)

- **밀**: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식의 영역에서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각자가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수특)

- **벌린**: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 (수특)

->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가 동요하지 않는 상태 X (수특) -> 독재도 정당화될 것

-> 자유의 이상은 어떤 권력 기관도 없을 때 달성 가능 X (수특)

->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상태 -> 적극적 자유 (수특)

-> 적극적 자유: '~를 향한 자유' (<-> 소극적 자유: '~로부터의 자유') (수특)

3) 홉스

- 신민에게는 주권자의 어떤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 X -> 생명보존권 침해시 불복종 가능

4) 로크

- 자연 상태에서의 각 개인은 평등하며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수완)

- 공평한 재판관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정당방위와 전쟁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자유, 자산, 즉 재산을 보전받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처벌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에 따라야 한다. 자연법은 인간이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타인의 생명,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 정치 사

회의 구성원이 될 때까지는 이런 자연 상태에 남아 있다.

-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인 또는 정치권력에 의한 자의적 간섭이나 구속이 없어야 한다.

5) 루소

- 공익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지가 바탕이 되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수특)

- 계약을 통해 각자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 아래 두어야 한다. (수특)

- 일반 의지: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 (수특)

- 스스로가 주권자이고 입법권을 지닌 공동체 내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의 자유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유를 지니게 됨 (수특)

- 정부가 시민의 주권을 찬탈하면 계약은 파기되며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진다. (수완)

- 사회계약이 이루어진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진다. (수특)

1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는 행위 (수특)

-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심의를 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근거들을 토론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이 다른 시민들과 토론하면서 수정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은 단순히 자신들에게 있는 사적이거나 비정치적인 이익에서 나온 고정된 결과가 아니다. 이 지점에서 공적 이성은 아주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공적 이성은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에 관하여 시민들이 사고할 때 바로 그 특징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수완)

-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다.

2) 수정 자본주의

- 자유 시장 경제의 완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X (수특)

-> 자유 시장 경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

- 모든 개인이 경제 행위와 관련해 타고난 자연적 자유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며, 소유자나 획득자에게 영속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항상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지도 않는다. 사회적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완)

- 투자의 사회화를 위해 사회주의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생산 수단의 소유가 국가의 주요 역할은 아니다. 생산 수단을 증가시키는 데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과 그 자원의 소유자들에 대한 기본 보수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는 역할을 다한 것이다.

-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저절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 경제적 불평등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X -> 정부의 개입

3) 하버마스

- 민주적 법치 국가는 단순한 합법성을 토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근거 짓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아닌 조건부의 복종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 성격과 다수에 대한 호소의 의도 외에도 다음 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국가 권력의 자제를 강요할 수 있다. 먼저 법질서 전체는 온전해야 한다. 또 규칙 위반자는 자기 행위의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끝으로 자신의 주관적 확신이 무엇이든 간에 **헌법을 정당화하는 승인된 원칙들로부터 자신의 불복종을 근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수특)

-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특)

- 헌법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수특)

-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서 합법화될 수 있는 행위이다 X (수특)

4) 엘리트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 X (수완)
- > 민주주의는 인민이 직접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또 의미할 수도 없음
- 정치가의 역할은 모든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 X (수완)
- >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합리적 논의에 의해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선을 상정할 수 없음
-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치가의 지배에 있다. (수완)

5) 소로

- 정부는 국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의 양심을 위임받아야 한다 X
- > 국민은 스스로의 양심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현시켜야 함

6) 자본주의 공통

- 정부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신자유주의

- 정부의 개입에 의한 모든 계획 경제를 반대한다.

8) 마르크스

- 사회주의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 자본주의적 분업을 통해 사회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X (수완)

9) 민주 사회주의

- 전면적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되 부분적 사유도 인정해야 한다 X (16' 수능)
- > 부분적 계획경제 (시장경제 + 계획경제 혼합 체제 지향)

15.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

1) 생피에르

- **공리적 관점**에 근거하여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제시하면 군주 스스로 평화를 지향할 수 있고 **군주들의 연합**을 만들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음 (수특)
- 군주들의 연합에서 각국은 주권과 영토권을 보장받으며,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국가 대표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해야 함 (수특)
-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 간 관계의 안정을 믿지 않았다. 흡스의 자연 상태에 처한 개인처럼 유럽의 모든 국가는 속히 함께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오로지 연방 정부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창했다.** 상업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애썼으며, 유럽 연방을 자유 무역 체제를 향한 첫 단추라고 보았다. 세력 균형과 더불어 당시 유행하던 중상주의 사상과 정책을 우려의 눈으로 보았으며, 경제가 정치에 종속될수록 국가는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이성의 계몽에 희망을 두었던 그가 열과 성을 다해 막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무역이 전쟁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수완)
- 인간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즐거움이나 편의를 얻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수완)

2) 롤스

-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은 해외 원조의 목적이 아니다. (수특)

3) 칸트

-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X (수특)**

-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수완)
- 군주의 연합을 통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X -> 공화정체의 국제 평화 연맹
- 대량 살상 무기와 전쟁 등의 직접적 폭력의 부재를 평화로 보는 것은 불충분하다.
- > 평화: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
- 국가 간의 계약이 없어도 평화 상태는 구축될 수도 있고 보장될 수도 있다 X (수완)
- > 국가 간의 계약(평화 연맹) 필요

4) 에라스무스

- **생피에르와의 공통점:** 전쟁보다 평화가 경제적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된다. (수특)
- 국경을 초월하여 타인에게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X
- >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 경우 전쟁 행위도 관용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

5) 세계 시민주의: 누스바움

- 국가나 민족보다 세계 시민에 대한 충성이 우선한다고 여겨야 한다. (수특)
- > **세계 전체의 인간에게 충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 어느 나라나 지역 혹은 집단에 충성하는 것을 이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6) 간디

- 힘은 육체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힘사(폭력)은 동물의 법이고 아힘사(비폭력)은 인간의 법이다. (수완)
- 폭력에 반대할 힘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비폭력의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비폭력 추구자는 모든 행위의 원천을 자비에 둬으로써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X**

7) 롤스 싱어 공통

- 해외 원조를 통해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부정의를 교정해야 한다 X
- 국가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국제적 분배 정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X

8) 갈통

-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수완)